

# 업무동향

## 업무동향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선정

최근 정보통신, 서비스 등의 표준이 내폭 증가하고 급격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담당하여 왔던 국가표준 개발·관리를 민간기관에서 전담한다.

\* 2000년에 비해 국가표준은 IT분야 3.3배, 식료품 3.3배, 전기 2.6배, 항공 2.1배 증가

기술표준원은 이달 11일 정보통신기술협회, 내한치과 의사협회 등 14개 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하고 정보통신, 전력선비 등 34개 전문기술 분야에서 1,900여종의 국가표준을 민간에게 이양하였다.

\* COSD :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이번에 지정되는 기관들은 기업, 소비자, 관련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율이 가능하고 표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기술기준 및 표준을 담당하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민간표준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은 ASTM(재

료시험협회),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 250여개 기관을 국가표준개발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 美(표준화기관인정제도, 250여개 기관), 日(특정표준화기관제도, 3개 기관)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는 정부가 국가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민간이 표준을 개발·관리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80%의 국가표준을 민간에 이양하게 된다.

\* 국가표준 중 80% 이양 : 1단계(15%, '09년) · 2단계(40%, '10년) · 3단계(25%, '12년)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가표준제·개정(안) 개발 및 관리를 민간에서 담당하여 국가표준 개발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국가표준 행정처리 절차가 간소화(6단계→3단계)하게 된다.

\* 신청·기술검토·초안개발·의견수렴(공청회)·예고고시·심의·고시

> 신청·표준개발협력기관(기술검토, 초안개발, 의견수렴)·예고고시·심의·고시

기표원은 표준개발협력기관을 발굴·육성하고 국제표준화(ISO/IEC) 대표기관이자 국가표준총괄·조정 기관으로서 표준 정책·기획 및 국



제표준화 등에 주력한다.

우리나라의 양적 국가표준수(22,760종)는 국제 수준이나 표준인력, 전문성 등에서는 선진국에 미흡한 편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표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민간단체표준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이 상이하거나 중복성이 높아 기업에게

이중규제로 인식되고, 유사한 기술기준을 여러 부처가 제·개정함으로써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 제기도 있었다.

기표원은 이러한 기술기준을 관리하는 각 부처 산하기관, 협회 등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술기준과 표준을 통일화하고 국가표준을 정부와 민간 부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확산하는 거점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기관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특 징	지정분야	품목	지정 기간
제2008-001호	한국표준협회 (최갑홍)	교통정보, 지리정보 분야의 국내간사기관이며 국가표준 인증기관으로 표준화 전문성 인정	정보(X) 교통정보(ISO/TC204) 지리정보(ISO/TC211)	69종	2008.11.11 ~2011.11.10
제2008-002호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김원식)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KICS 표준 초안개발 및 ITA 단체 표준 관리기관으로서 ITU와 3GPP 등을 담당	정보(X) 정보보안(JTC1/SC27) 정보통신기술 (JTC1/SC6)	348종	2008.11.11 ~2011.11.10
제2008-003호	대한치과 의사협회 (이수구)	치과용 의료기 분야의 국내간 사기관이며 표준화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인정	의료(P) 치과용품(ISO/TC106)	174종	2008.11.11 ~2011.11.10
제2008-004호	대한전기협회 (김쌍수)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운영·관리기관이며 전력설비기술기준(KEPIC) 단체표준 개발·운영기관, 보일러 및 압력용기 국내간사기관, 미국 ASME, IEEE 등과 저작권 MoU 체결 등	기계(B) 보일러 및 압력용기 (ISO/TC11) 전기(C) 서지뢰뢰기(IEC/TC37) 건축물의 전기안전 (IEC/TC64) 뢰뢰설비(IEC/TC81) 고압시스템공학 및 전력 설비 건설(IEC/TC99)	92종	2008.11.11 ~2011.11.10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기관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특 징	지정분야	품목	지정 기간
제 2008-005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윤종용)	전자관 분야의 국내간사기관이자 전자부품분야 단체표준 개발기관으로 전문성 인정	전기(C) 정보구조, 문서 및 그래픽기호(IEC/TC3) 전자관(IEC/TC39) 압전·유전소자(IEC/TC49) 설계자동화(IEC/TC93)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의 환경표준화(IEC/TC111)	91종	2008.11.11 ~ 2011.11.10
제 2008-006호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함희인)	가스버너분야의 국내간사기관이며 표준화 실적이 우수하고 시험검사 전문성 인정	기계(B) 난방용 제어 및 안전장치(ISO/TC161) 오일버너(ISO/TC109)	68종	2008.11.11 ~ 2011.11.10
제 2008-007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곽덕훈)	국제 교육정보 위원회 일원수입, IMS(국제 학습컨텐츠시움) 표준협력 MoU 체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교육정보화기관으로 전문성 인정	정보(X) 교육정보(JTC1/SC36)- 학술	4종	2008.11.11 ~ 2011.11.10
제 2008-008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김춘석)	전자문서 분야의 국내간사기관이며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KEC 기준 운용기관이고 OASIS(전자거래정보화) 등과 표준협력 MoU 체결기관으로 표준화 활동 실적이 우수	정보(X) 전자문서 전자상거래(ISO/TC154) 소프트웨어 컴퓨터그래픽스(JTC1/SC32) 교육정보(JTC1/SC36)- 산업	77종	2008.11.11 ~ 2011.11.10
제 2008-009호	KI&G 중앙연구원 (박강제)	담배분야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이며 CORESTA(국제담배표준기구) 회원으로 국제표준화 대응	식품(H) 담배 및 담배 제품(ISO/TC126)	36종	2008.11.11 ~ 2011.11.10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기관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특 징	지정분야	품목	지정 기간
제2008-010호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이화석)	TC178(승강기) 국내 간사기관이며 CEN/TC10(승강기)와 MoU 체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 분야 전문기관으로 인정	기계(B) 승강기(ISO/TC178)	55종	2008.11.11 ~2011.11.10
제2008-011호	한국석유품질 관리원 (이천호)	석유 제품 분야의 국내 간사기관이며 석유 및 대체에너지 사업법의 기술기준 관리 및 시험·검사 기관으로 전문성 인정	화학(M) 석유제품 및 윤활유 (ISO/TC28)	325종	2008.11.11 ~2011.11.10
제2008-012호	한국조선기자재 연구원 (김기정)	조선 기자재·부품 표준화 기반 구축 등 표준화 실적이 우수하고 조선분야의 유일한 종합연구기관으로 전문성 인정	조선(V) 조선(ISO/TC8)-기관, 전기기기, 항해용기기	177종	2008.11.11 ~2011.11.10
제2008-013호	한국건축자재시 험연구원 (김호일)	건축재료 등의 국내 간사기관이며 ASTM의 건설분야 전문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며, 국내 유인의 건축분야 시험평가기관으로 전문성 인정	건설(F) 방수재 (ISO/TC59/SC6,8) 창호재(ISO/TC162) 건물환경(ISO/TC205) 콘크리트(ISO/TC7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지반공학(ISO/TC182)	326종	2008.11.11 ~2011.11.10
제2008-014호	FTI시험 연구원 (정우영)	산업용 섬유 분야의 국내 간사기관으로 ASTM, AATCC의 섬유분야에 대한 거점기관으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험방법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인정	섬유(K) 산업용 섬유 (ISO/TC221)	62종	2008.11.11 ~2011.11.10

## 초등학교 대상 표준화 교육



기술표준원은 어릴 때부터 표준에 대한 의식과 기초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를 표준 선진국으로 이끄는 표준인재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찾아가는 표준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표준 전문가가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1일 교사 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표준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1교시(40분) 분량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고 또한,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부모님, 담임선생님과 함께 수업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를 배포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올해 초부터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초등학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기획 하였으며, 10월에 전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11개교로부터 시범교육 신청을 받아 11월과 12월에 총 9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시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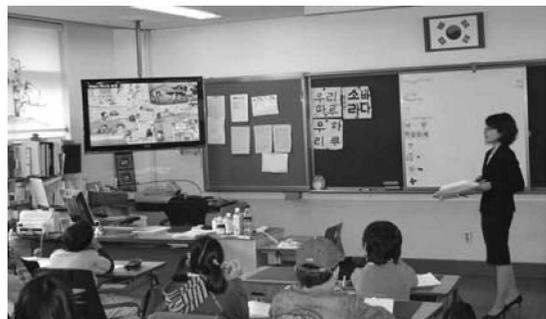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표준화 교육 교재의 개발을 위해 집안 및 집밖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표준,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을 발굴하였으며, 초등학교들이 표준이 주는 편의성, 경제성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하였다.

집안에서 볼 수 있는 표준으로는 휴대폰 충전기 표준, 전화기 숫자배열 표준 및 형광등 램프 표준 등을, 집밖에서 볼 수 있는 표준으로는 공항 안내 그림표시 표준, 점자블록 표준 및 교통 신호등 표준 등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으로 전기 플러그 표준, 측정단위 '미터법' 표준 및 안전표준 등을 예로 들어서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게 교육 콘텐츠를 편성하였다.

이번 시범 교육의 실시에 따른 초등학교 및 교사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보완하고, 향후에도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표준화 교육 아이টে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내년도부터는 더욱 많은 초등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표준화 교육 강사의 양성 등을 통해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이 표준을 직접 접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표준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표준 꿈나무의 양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 ISO · IEC · JTC1 활동전문가 교육

기술표준원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ISO · IEC · JTC1 활동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의 표준화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표준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표준협회에서 교육과정을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 교육일정 : 입문과정(11.4~11.5), 실무과정(11.6~11.7), 리더양성과정(12.10)

국제표준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활동하는 의장단(의장/간사/컨버너) 수임이 곧 자국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영국, 미국, 일본 등의 표준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제표준 전문가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은 '06년에 「국제표준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국제표준 전문가의 참여 촉진과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영국의 BSI와 미국의 ANSI도 자국의 표준화 위원회 및 국제표준화 위원회에 참여할 인력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은 산·학·연의 국제표준화기구 참여자 또는 참여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문, 실무, 리더양성의 맞춤형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입문과정은 국제표준의 중요성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국제표준화 문서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초급과정이다.

실무과정은 국제표준 제안 및 채택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국제표준 개발 전문가를 육성하는 중급과정으로,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회의의 진행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리더양성과정은 표준활동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국제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고급과정으로, 기존에 의장 및 간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노하우(Know-how)를 전수한다.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은 투표시스템(e-vote 시스템) 및 표준개발 템플릿 사용법 등을 실제 실습을 통하여 배움으로써 표준관련 업무시 현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리더양성과정의 경우는 미래에 의장 및 간사활동을 희망하는 국내 전문가들과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의장, 간사를 멘토로 연결시켜주는 등의 효과적 표준인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본 교육은 년간 4회 정도(분기별 1회)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 운영과 함께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관도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 픽토그램 국가표준(KS) 사용 설명회

기술표준원은 국내·외 관광객 및 외국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언어, 관습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지하철,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한 픽토그램에 대한 국가표준(KS) 사용 설명회를 11월 6일 개최하였다.

(픽토그램 사용 설명회)

- 일시: 2008년 11월 6일, 15:00~17:00
- 장소: 기술표준원 본관동 1층 소회의실
- 감사: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박진숙 교수

픽토그램 국가표준(KS A 0901)은 한·일 월드컵(2002)에 대비하여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335개가 제정되었다.

335개의 픽토그램은 시설에 관한 안내표지 209개(공공시설 84개, 교통시설 29개, 상업시설 21개, 관광·문화시설 33개, 스포츠시설 42개)와 안전표지 126개(안전유도 10개, 화재안전 7개, 금지 49개, 주의·경고 37개, 지시 23개)로 구성한다.

이 중 '비상대피소', '보안면 착용', '애완동물 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등 32개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국제표준(ISO)으로 채택되었다.

그 동안 픽토그램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경쟁적 개발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잘못된 사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픽토그램을 사용하는 기관, 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1월 6일, 픽토그램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335개의 픽토그램이 수록된 CD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 KS표준은 (<http://stancarc.kats.go.kr>)에서 열람 가능

공공안내 그림표지 국가표준(KS A 0901)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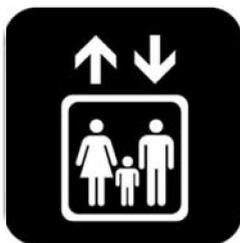
화장실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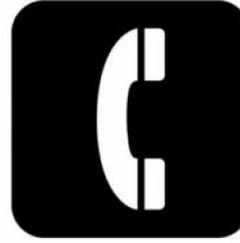
장애인 경사로



엘리베이터



안내소



전화



금연



휴대전화 진동사용



회의실



식당



이발소



화재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비상구



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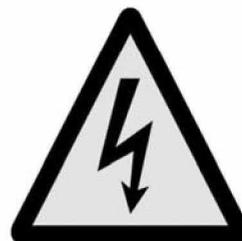
소화전



금연



손 대지 마시오



감전주의/전기주의



머리 위 주의



도서관



심장박동기 착용자 출입금지

국제표준(ISO)으로 채택된 우리나라 픽토그램(32개)



비상대피소



비상시 깨고 여시오



의사



멍견주의



머리 위 주의



인화물질 경고



뾰족한 물체 주의



민지 마시오



애완동물 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귀마개 착용



보안경 착용



사용후 전원차단



보안대 착용



손을 씻으시오



안전복 착용



용접마스크 착용



얼굴 보안면 착용



마스크 착용



반사조끼 착용



안전대 착용



손보호 크림 사용



욕조 사용



병원



옷 보관소



전망지



야영장



물품보관소



캐리밴 야영장



호텔



바



왼쪽으로 타시오

## 픽토그램 적용이 잘된 사례 및 잘못 된 사례



- \* 장애인용 여자(남자) 화장실과 같이 2개의 그림표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 전달 내용인 여자(남자)가 그림표지의 왼쪽에, 장애인 기구는 오른쪽 하단에 여자(남자) 보다 작게 표시되어야 한다.



- \* 노랑, 초록색은 안전색(safety color)으로 안전 표지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설 안내 표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비상구의 사람 방향과 화살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다.

### 안전관련 그림표지의 색상 적용 사례



빨강  
(K 311 4/14)



빨강  
(K SR 4/14)



노랑  
(K SR 8,5/10)



파랑  
(K SPB 4/10)



초록  
(K SR 4/10)

### 안전관련 그림표지의 색상 적용이 잘된 사례



건대입구

세종대

| 기술 표준 2008.12